

DMZ와 분단... 붉은 산수에 스며든 시대의 기억

동곡뮤지엄, 개관 5주년 기념 이세현 개인전
광주서 첫 선...10일부터 작품 130점 선보여
“금기의 붉음이 회복과 사유의 색으로 복귀”

대학 시절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마주하며 형성된 그의 예술적 사유의 뿌리. 그리고 붉은 산수에 스며 있는 기억의 출발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마련된다.

동곡뮤지엄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한국 대표작가 이세현 개인전을 오는 10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Beyond Red-기억중독'이라는 타이틀로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광주·전남 첫 개인전으로 마련된 가운데 전통 산수화의 형식 위에 DMZ와 분단의 상흔, 시대의 기억을 붉은 색 하나로 그려온 대표 연작 '비트윈 레드', 그리고 개인적 관계에서 출발한 감정과 무한한 세계에 대한 사유를 통해 우주

적 풍경으로 확장된 '비운드 레드'(Beyond Red) 및 '비트윈 레드'(Between Red) 연작을 포함해 30여점을 비롯 초상화·드로잉을 망라한 70여점 등 총 130여점이 소개된다.

이 작가는 전통 산수화의 부감 시점과 능선의 흐름 등 산수 구도를 현대적으로 변용해 자연의 재현이 아닌 전쟁·상실·분단·역사적 기억이 층위처럼 쌓인 '기억의 산수'를 구축해왔으며, 그의 붉은 풍경은 군 복무 시절 야간투시경을 통해 본 비현실적 장면, 아픔다움과 실존적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했던 풍경에서 출발해 현대사의 상흔을 붉은색 하나로 응축한 독창적 회화 세계로 주목을 받아왔다.

'비트윈 레드'는 DMZ, 철책선, 감시초

소, 포격 흔적 등 분단의 지형과 한국 현대사의 상처를 붉은색 하나로 기록한 사회·역사적 산수로, 한국전쟁과 이념 갈등 이후 '금기의 색'이었던 붉음을 도입해 정치·사회적 폭력과 시대의 비극을 조형적으로 드러내는 연작으로, 이세현 회화의 출발점이자 정체성을 확립한 작업이다.

반면 '비운드 레드'는 붉은 산수의 시선을 사회적 현실에서 더 넓은 감정과 우주적 사유로 확장한 연작으로, 별빛, 은하, 구름, 바다, 고향의 풍경,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흔적 등 개인적·정서적·우주적 이미지가 화면을 구성하며, 상처와 폭력의 기억 너머에서 삶의 근원성과 존재의 무한함을 탐구한다. 이는 작가가 오래 겪어온 고향 상실·유년의 단절·어머니에 대한 기

억을 자연과 우주의 이미지로 승화시킨 회화적 전환점이기도 하다.

이 두 연작은 전쟁·분단의 역사적 풍경에서 출발해 존재론적·정서적 풍경으로 나아가는 붉은 산수의 변화와 확장을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어 전시에서 출품된 초상화는 삶과 죽음, 기억과 망각의 경계에 선 인간 내면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드로잉·습작은 작가의 사고과정과 조형적 탐구를 보여주는 중요한 아카이브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가가 '마음의 고향'이라 말해온 광주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으로 더욱 특별하다. 대학 시절 처음 마주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은 그의 예술관을 형성한 결정적 경험이었으며, '예술

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응시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남겼다. 작가에게 광주는 예술적 사유의 시작점이며, 이번 전시는 그가 다시 광주로 돌아와 붉은 산수의 뿌리와 확장된 세계를 모두 펼쳐 보이는 자리다.

전시의 핵심 개념인 '기억중독'은 기억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다시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는 순환 구조를 뜻한다. 사회적 사건에서 개인적 상실, 시대의 진함과 관계의 감정까지 서로가 서로를 연결지으며 만들어낸 붉은 풍경의 층위를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개막 당일에는 작가가 직접 참여하는 아트토크가 함께 진행된다. 이번 아트토크에서는 '붉은 산수'의 형성 배경과 작

업에 스며 있는 기억의 의미, 아울러 최근 작품에서 확장된 사유의 흐름을 중심으로 작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관람객은 작품 뒤에 숨은 기억의 층위와 회화적 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문복지재단(동곡뮤지엄) 정영현 이사장은 “한때 금기의 색이던 붉음이 예술가의 손에서 상처를 넘어 회복과 사유의 색으로 되돌아온 뜻깊은 전시”라며 “관람객들이 깊은 감동과 성찰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은 기간 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꽃’

존재에 숨결 불어넣는 ‘호명의 무대’ 깊은 여운

전통·현대, 동서양 가로질러 ‘신선’
국악 총체 미학 국악관현악 새 지평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4회 정기연주회 ‘꽃’은 그간의 예술적 궤적을 압축한 결산이자 그 자체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선언이었다. 첼로와 종묘제례악, 판소리와 오페라가 한 무대에서 더해지며 국악의 외연을 과감히 확장했다. 그 중심에는 ‘호명’(呼名)과 ‘존재’라는 키워드가 무대 전체를 꿰뚫었다.

지난 28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김춘수의 시 ‘꽃’을 모티프로 한 이견웅 작곡가의 위촉 초연곡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오가는 다층적 무대를 선사했다.

공연의 포문은 전세계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온 ‘아리랑 환상곡’으로 열렸다. 서양관현악과 국악관현악이 아리랑의 선율을 밀고 당기면서 익숙한 곡을 새로운 질감으로 재해석했다.

이어 ‘희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의 일무와 서양악기인 첼로 선율의 결합이 돋보였다. 첼로 수석 최승욱의 연주에 약장 김병오의 목소리의 목소리가 얹히며 서양악기의 유려함과 전통의례의 무게가 오묘하게 교차됐다. 두 세계의 긴장감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는 타악기의 폭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4회 정기연주회 ‘꽃’이 지난 28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렸다.

발력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자진모리와 굿거리리를 넘나드는 속도감은 국악 고유의 생동감을 밀도있게 드러냈고, 관객과의 호흡도 이끌어냈다. 관객들은 어깨를 들쭉였고, 객석 여기저기서 흥을 주체하지 못한 청중들의 추임새가 흘러나왔다. 국악기의 타격음이 자연의 질감처럼 들려 시원스럽게 쏟아지는 한여름 소나기의 감각을 그대로 느낀 반응이었다.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년 기념작 ‘불의 춤’은 짙은 리듬 위 정열적 무곡으로 무대의 온도를 높였다. 점차 변화무쌍해지는 리듬감과 리듬에 몸을 맡긴 무용수들의 움직임,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 현

대무용적 결기로 밀어붙인 구성력이 짜임새 있게 다가왔다.

아울러 박승희 지휘자가 작곡한 판페라 ‘쑥대머리’는 춘향이가 돌아오지 않는 임을 그리며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을 오페라의 드라마 투티처럼 확장한 시도가 신선했다.

마침내 공연 전체가 하나로 수렴되는 순간은 마지막 곡 ‘꽃’에서 찾아왔다. 귀를 사로잡는 마립바·비브라폰의 투명한 음색과 140여 가지 꽃의 이름은 신비로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시립합창단이 광주의 이름을 상징하듯 음을 쌓아 올리는 장면과 메조소프라노 김하늘이 단백하

게 여려 꽃의 이름을 나열하며 부르는 장면은 이번 공연이 관객에게 건넨 가장 직접적이고 확고한 메시지였다.

저항과 비통, 희망과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 마침내 피어오르는 합주로 귀결됐다. ‘꽃’은 시의 재현이 아닌 시의 개념을 음악 구조로 치환한 실험임을 입증했다. 이름을 가진 꽃 하나하나가 모두 고유한 세계를 갖는 것처럼, 광주 정신 역시 집단적 존재의 복원이라는 차원으로 확장됐다. 이때 국악관현악은 기억과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광주 정신을 음악으로 진흥하고, 다시 꽃으로 피워낸다는 명확한 의도가 읽히는 무대였다. 광주의 생명력과 송고함이 음악적 언어로 재탄생했을 때, 국악관현악이 어느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

시·낭독·성악·타악·무용·합창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 예술 무대로, 전통에 기대지 않지만 전통을 잃지 않았다. 문화와 역사, 기억이 층위를 불러 모아 도시에 대한 또 하나의 서사를 형성했다. 국악이 가진 원초적 힘과 도시의 기억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문화적 표표를 제시하는 무대였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녹두장군’ 송기숙 소설가 4주기 추모식 거행

6일 오전 11시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대하 ‘녹두장군’, 장편 ‘암태도’·‘자랴골의 비가’ 등을 통해 역사성을 기반으로 사회의 부조리한 세태를 날카로운 서사를 통해 패부를 짚았던 송기숙 소설가의 4주기 추모식이 마련된다.

30일 (사) 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작가회의와 오월문예연구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우리의교육지표기념사업회 등 8개 단체 공동주최로 교육자와 창작자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 간 송기숙 소설가(1935~2021·전 전남대 국문과 교수)의 4주기 추모식을 오는 6일 오전 11시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에서 거행한다.

송기숙 소설가는 전남 장흥 출생으로 전남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 중단편집 도깨비 잔치를 비롯해 소설집 ‘백의민족’, ‘도깨비 잔치’, ‘재수 없는 금의환향’, ‘개는 왜 짚는가’, ‘테러리스트’, ‘어머니의 깃발’, ‘들국화 송이송이’, 장편소설 ‘자랴



골의 비가’, ‘암태도’, ‘은내골 기행’, ‘오월의 미소’, 대하소설 ‘녹두장군’, 산문집 ‘녹두꽃이 떨어지면’, ‘교수와 죄수 사이’, ‘마음, 그 아름다운 공화국’, 단편집 ‘보쌈’, 어린이청소년도서 ‘이야기 동학농민전쟁’, ‘보쌈 당해서 장기간 출아비’ 등 다수를 펴냈다. 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 목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등을 두루 역임했다. 금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제5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제13회 요산문학상, 제12회 금호예술상, 제9회 만해문학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성평등 마을 결실 광주여성친화마을 성과공유회

여성가족재단, 4일 광주시민회관...10개 공동체 발표·교류

광주 여성친화마을사업의 한 해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4일 오전 10시 광주시민회관 1층 공유공간에서 ‘2025년 광주 여성친화마을사업 성과공유회’를 갖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여성친화도시 역량 강화 코칭지원사업의 추진 결과와 함께, 광주 10개 여성친화마을 공동체가 마을사업의 결실을 시민들과 폭넓게 공유하는 자리다.

본격적인 성과공유회에 앞서 광주시민회관 1층 전시관 및 공유공간에서 다채로운 부스 행사 및 전시가 운영된다.

올해 여성친화마을의 생생한 활동들

담은 스토리텔링 북과 공동체별 사업 성과물 등이 전시되어 마을 활동의 성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올해 여성친화마을로 선정된 10개 마을공동체 대표들이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할 후 광주여성친화마을을 활동가 네트워크의 소개, 여천마을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여성친화마을사업 선정 마을을 비롯해 자치구 여성친화마을 공동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광주여성친화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ACC, 발란사·산산기어와 협업 상품 출시

요문화전당 문화상품점 ‘들락’서...전시 연계 후디 선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 이하 ‘전당재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아 민간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한정판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협업은 전당의 상징성과 민간 브랜드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결합한 의미 있는 시도로, 전당 10주년을 더욱 특별하

게 기념하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협업하는 의류 브랜드 ‘사운드 숍 발란사’(Sound Shop Balansa)는 올해 전당 5개원의 건축 및 공간에서 영감을 받은 ‘후디’를 선보였다. ‘후디’에는 양 기관의 대표 정체성을 결합한 로고와 함께 전당 5개원의 건축물과 공



산산기어가 선보인 후디

간에서 영감을 받아 발란사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그래픽 디자인을 담았다. 이 상품은 전당의 공간적인 상징성에 하위 문

화의 감각적인 감성이 더해져 관람객은 물론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래지향적이며 감각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는 브랜드 산산기어(SAN SAN GEAR)는 ‘로지 이케다’ 전시 연계 상품인 ‘데이터 그램(data gram) 01 하드론 콜리전스(hadron collisions)’ 후디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7월 ‘로지 이케다’ 전시 개막에 맞춰 선보인 티셔츠가 단기간에 품절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 방문객들을 위한 후속 작업의 결과물이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